

## “기후변화로 日 쌀 수확량 40% 감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본 중부 및 남부 대부분 지역의 쌀 수확량이 금세기말까지 최고 4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9월 18일 전망했다. 기후변화를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IPCC의 공식 보고서 “기후변화 2007 총격과 적응, 취약점”은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지적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작물 및 농업 분야가 직면한 위협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쌀연구소(IRRI) 조사를 인용, “벼 성장기 최저 기온이 1°C 올라갈 때마다 수확량이 10%씩 감소하고 벼농사에 적합한 경지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자료: 연합뉴스, 9.15〉

## 中, “한국과의 FTA 원해”

중국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 아주사의 뤼커지엔 사장은 19일(현지시간) 오후 한중수교 15년을 맞아 한-중 무역관계 변화 기자설명회를 갖고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매우 중시하며 또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뤼 사장은 “현재 한·중 FTA에 관한 산관학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산관학 연구가 앞으로의 FTA 협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 사장은 이어 한중 FTA의 장애 요소로서 한국의 경우 농업, 중국의 경우는 자동차, 화학공업 등을 꼽았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대해 뤼 사장은 “기업들은 자기 발전과 수요에 근거해 해외 진출을 결정하며 한국이 정책적, 투자환경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 경제신문, 9.15〉

## 농촌진흥청, 일본과 농업환경문제 공동 대응기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9월 19일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에서 일본 독립행정법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이사장 Sato)와 한·일 농업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한·일 양국의 과학자들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07-'10) 4년간 공통적인 관심사인 농업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농업공동연구 협약으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중금속, 다이옥신, 영양염류, 암모니아 및 POPs등』 농업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쟁점 및 현안사항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게 될 전망이다.

〈자료: 농촌진흥청, 9.15〉

## 기후변화에 대응 대체작물 찾아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충북 5개 사과 주산지의 연평균 기온이 1973년에 비해 약 1°C 상승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 평균 ‘후지’ 품종 사과의 안개일이 평년(최근 30년 평균값, 5월 1일)에 비해 일주일 가까이 빨라진 4월 26일이 됐다. 이에 따라 사과의 모양이 지금보다 더 납작해지고 붉은 색깔은 흐려지며 당도 또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28일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작물작부체계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지구 온난화로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또한 중요하다는 최근의 세계적 인식 변화와 같은 맥락이다.

〈자료: 문화일보, 9.22〉

### 농림부+해양수산부 '농림해양부'로, 개정법률안 발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하나로 합쳐 '농림해양부'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해 농림해양부로 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그대로 존치시켜 현재 2원 18부 4처 17청인 중앙행정기관을 2원 12부 4처 16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자료: 농민신문, 9.22〉

### "농업, 더 이상 사양산업 아니다"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업의 투자가치를 재평가하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증권은 28일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경농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곤·박종록 한화증권

연구원은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로 인해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 등은 또 "세계 인구 증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 바이오에너지 산업성장 등이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문화일보, 9.22〉

### OECD, '개도국 세분화' 논의 재개 개도국 지위 유지 '비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달 중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소위 등급을 부여하는 '개발도상국 세분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이 개도국 세분화 문제는 OECD 이외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의미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개도국 세분화 문제를 제기해 OECD가 이달 중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개도국 세분화란 개도국도 국가별 경제력 등을 따져 단계별로 차등 구분하지는 것으로, OECD 무역위원회가 DDA 논의에 기여키 위해 2001~2002년에 추진했으나 한국과 멕시코 등의 반대로 비공개 처리키로 하고 2003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자료: 농수축산신문, 9.29〉

## 농림부, 재해 견딜수있는 재배시설 기준 마련

농림부는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시설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농업인이 규격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 한해 각종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재해복구비, 지자체 지원사업 및 내년부터 추진할 시설원예충질개선사업 등에는 이번에 개정되는 규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번 시설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 규격시설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상향 지원하는 한편,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를 시설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자료: 농민신문, 9.29〉

## 무주, 500㎡ 규모 '벼 공동 육묘장' 운영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전북 무주군이 설천면에 500㎡ 규모의 '벼 공동 육묘장'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벼 공동 육묘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사업비 9600여만원을 투입, 육묘 온실과 자동제어·살수장치, 최아기, 온풍기, 녹화장 시설 등 자동화 장비를 갖추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지원 담당은 "벼 공동 육묘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을 통해 친환경 쌀 재배에 대한 집중 지도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품종 혼입을 방지하고 이양시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고품질

의 모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현상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뉴시스, 9.29〉

## 여주·이천 농업용수 개발, 기획예산처 사업타당 결론

이천·여주 지역 일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기획예산처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 991억원을 들여 농림부가 이천시 백사·신둔면과 여주군 흥천면 일단 31개리에 2개소, 송수관로 5.8km, 용수로 71.4km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금 상습지역 1천794ha 면적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된다. 더불어 9천231세대 2만 6천219명의 80%가 간접수혜를 받게 된다.

〈자료: 경기신문, 9.29〉

##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화해에서 융합으로, 긴장에서 상생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 정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늘 농업 분야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격동의 와중에서 열리게 된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롭게 진전될

농업협력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남북간 농업협력은 북한의 '먹는 문제'를 완화하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기반을 복구하고, 나아가 경제재건의 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개발방식까지 폭 넓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농업계의 오랜 구상이다.

〈자료: 프레시안, 9.29〉

### 농림부, 전국 농촌현장에 농업인 신문고 119개소 설치

농림부는 농업인들의 생활속 불편사항을 어느 때라도 농림부에 알릴 수 있도록 농업인 신문고 11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9월 28일 나주에서 임상규 장관,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신문고』 현관식과 타고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 출장소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임상규 장관은 농업인 애로 파악 및 해소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한 농업인 대표와 이·통장들에게 현장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농업인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농림부 뉴스마당, 9.29〉

### 국제곡물가격 급등...쌀값 폭등 걱정 왜 없나

국제 곡물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수

산물 분야에서 올해 상반기 54억 352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밀 가격은 1부셀에 9.34달러로, 1년 전과 2년 전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씩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까지 미국, 러시아 등의 소맥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소맥 재고량은 78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전략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높여 밀물처럼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미디어 오늘, 9.29〉

### 축산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사료연구소와 협약 체결

축산과학원이 중국 농업과학원 사료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양국 교류를 통해 축산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달 27일 축산과학원 강당에서 중국 농업과학원 사료연구소와 새로운 축산 사료 개발 및 기술공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축산과학원과 중국 사료연구소간 축산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을 위한 양국 연구소간 기술공유 방법을 비롯해 국제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 및 새로운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

〈자료: 농수축산신문, 9.29〉